

임실 전통시장 숨통트일까

내달 6일까지 시장서
한가위 큰 잔치 벌여
군, 상품권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 병행



임실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임실시장에서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한가위 대축제가 열린다. 사진은 주민들이 임실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다.

임실군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임실시장에서 한가위 대축제가 열린다. 군은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임실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한가위 행복나눔 큰 잔치' 행사를 임실시장에서 진행한다.

행사기간에는 임실시장내 25개 점포에서 10~30%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정비구기도 증정된다.

또한 추석을 사흘 앞둔 1일에는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임실지역본부(본부장 장일수)에서 주관하고 임실군이 주최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열린다.

이날 행사는 심민 군수와 지역기관 단장 등 200여명이 참여해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 전통시장 브랜드 일 위크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내달 26일까지 한 달 간 시장 물품 구입 고객에게 운누리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도 병행된다.

운누리상품권은 1인 1일 1회에 한해 카드전표와 현금영수증 등을 지참, 임실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방문해 교환하면 된다.

상품권은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 구매고객은 5천원권을,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구매 고객은 1만원권을 받을 수 있으며,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구매고객은 1만원권과 5천원권, 30만원 이상 구매고객은 1만원권(2매)의 상품권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백기용 임실시장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며 "시장을 찾아주시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상품과 친절로 자주 찾아올 수 있는 시장을 만들도록 상인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군은 1일 추석 전 대목장날을 맞아 다기능주차장을 임시 개장하며, 노점상을 임시로 허용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우리 전통시장에서 풍성한 먹거리들을 저렴하게 많이들 구입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군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노인복지관 개관 5돌 기념식

남원시노인복지관이 26일 개관 5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노인복지관 강당에서 열린 기념행사에는 300여명의 어르신이 참석해 개관 5주년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는 이환주 시장, 이석보 시의회 의장, 도의원,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 등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은 남원시노인복지관 서철승 관장의 기념사, 내빈축사로 이어졌으며 그동안 복지관 발전을 위해 애쓰신 분에 대해 감사패와 감사장을 전수하였으며 최고령(105세) 이용자 어르신에게 감사의 선물을 증정했다.

또한 개관 후 5년을 되돌아보는 "5년의 발자취"와 미래를 내다보는 의미로 "미래를 향한 소망"이라는 공모전 최고수상자의 동영상을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노인복지관이 어렵게 건립되어 5년이 되어 명품 노인복지관으로 성장하기까지 복지관직원, 자원봉사자, 그리고 사랑스런 도읍의 손길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히고 복지관 운영을 위해 앞으로도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남원시노인복지관은 지역의 중추적이고 종합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그동안 서철승 관장을 비롯한 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남원시 노인복지관은 하루 평균 400여명이 방문해 무용, 한글교실, 컴퓨터, 댄스, 노래, 서예 등 23개 과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취미에 맞춰 이용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은 26일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2층 강당에서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심민 군수가 축사를 하고 있다.

임실군 '남다른 효심행정' 호평

주민 중 노인인구 31.5%
군, 어르신 복지 최우선
민선6기 사업 성과 뚜렷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에 공이 큰 모범노인 임실읍 배진영(68세)씨 외에 11명이 임실군수 표창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실군의 2017년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지역 어르신들의 많은 참여로 대성황을 이룬 가운데 효심행정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군은 26일 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 2층 강당에서 심민 군수와 문영두 군의장을 비롯해 유공표창자와 유관기관단체장, 노인회 임원, 경로당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노인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축사,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실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의 식전공연과 초대기수의 축하공연으로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은 임실군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효심행정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

임실군 주민 중 31.5%가 노인인구인 점을 감안해, 노인복지를 최우선 핵심과제로 삼는 군 행정에 대한 높은 호응과 만족도 보였다.

실제 임실군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물리치료실 확충,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마을 운영, 노인 일자리, 행복콜택시, 경로당 지원, 노인 자살예방 등의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심민 군수는 "효심행정을 넘어 '어르신 행복도시'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정책 발굴, 추진, 개선에 더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사랑의 집수리' 후원 화수분

남원, 저소득층 2가구 지원
건협 전복, 도움 손길 건네
사회공헌·복지 실현 앞장

26일 남원시청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이광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저소득층 2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는 후원식이 있었다.

이번 후원은 2017회계연도 '남원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일환으로 남원시 관내의 저소득층에게 2가구를 추천 받아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1975년 단종건설업 면허제도가 도입

되면서 현재까지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국민경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 운동으로 저소득층 지원 및 지역사회 환경 개선 활동 등을 펼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광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이번에 후원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저소득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환주 시장은 "전문기술인의 관심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며 "남원시도 어려운 이웃들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경찰, 추석명절 대비
특별 행사활동 전개

순창경찰서(서장 신일섭)는 26일 순창 대목장인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추석 명절 전·후 강도, 절도 치기배, 주취폭력 등에 대비 전통시장 대목장 주변에 대한 특별 행사활동을 전개했다.

명절 준비에 분주한 마트주변, 현금취급업소, 현금인출기 주변에 대한 강·절도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사활동 실시하고,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는 이른바 '봉네족'의 불법 행위까지 집중 점검했다.

또한 명절 때마다 악용하고 있는 택배 스미싱이나, 귀성길에 오른 자녀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홍보와, 친환경 인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단속을 병행하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우리 땅의 뼈대 백두대간의 모든 것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년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지역 매아리

황금연휴기간 의료공백 無 임실군 비상진료체계 가동

임실군은 긴 추석명절을 맞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오는 30일부터 내달 9일까지 응급환자 및 일반 환자의 진료 이용 편의를 위해 당직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지정·운영한다.

먼저 지역응급의료기관인 임실군보건 의료원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며 지역 내 병·의원 18개소는 비상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약국 14개소를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지정해 의약품 구입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고 일부 편의점은 종합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등 6가지 안전상비 의약품을 판매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하면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당직의료기관, 휴일지킴이 약국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휴기간 진료가능 의료기관과 약국이용 문의는 임실군보건의료원 비상진료대책상황반(☎640-31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비발디의 사계' 공연 오늘 오후 7시 춘향문화예술회관

온 가족이 다 함께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그림자극과 떠나는 환상의 음악여행 '비발디의 사계' 공연이 27일 오후 7시 남원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 찾아간다.

2017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과 연계해 진행되는 본 공연은 트리나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이야기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작곡가 바흐의 시대 음악의 걸작 비발디의 명곡 사계를 그림자와 인형극, 클래식 오케스트라 아름다움 선율이 만나 눈 앞에 잡힐 듯 아른거리는 생동감 넘치는 시각, 청각적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클래식 그림자극이다.

2017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며 국공립 및 민간단체 등의 우수공연 선정에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나눔을 통해 소외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문화적 격차를 해소해 목적을 두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우수 공연들이 선보일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유영철 기자